

2006. 5. 1.(월) 배포

문의 / 통신이용제도팀 이상진팀장 (750-1350)

단희수 사무관 (750-1353) danhs@mic.go.kr

## 6월15일부터 2G-3G간 번호이동성 전면 도입

기존 이동전화 가입자중 010 식별번호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W-CDMA 등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로 전환 가입할 경우에도 전화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2G-3G간 번호이동성 제도가 6월 1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W-CDMA 활성화를 위해 2G-3G간 번호이동성제도를 가능한 빠른 시일에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안정적인 2G-3G간 번호이동성이 6월 15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전산시스템 개선, 사업자간 상호접속, 번호이동관리센터 연동, 시험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자간의 준비도 차이를 감안하여 동일 사업자내의 2G-3G간 번호이동은 5월 15일 이후 준비된 사업자부터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G-3G간 번호이동성이 010 이용자 약 1,490만명(전체이용자의 약 38%, '06. 3월)에 한정됨에 따라 기존 이동전화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 이용자는 W-CDMA로 전환 가입할 때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번호변경에 따른 이용자 불편은 현재 3개월간 무료로 제공되는 번호변경안내서비스를 이용자 신청이 있는 경우 추가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하여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번호브랜드화 방지를 위해 번호이동이 80%에 이르는 시점에 010으로의 완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끝.